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독점 '동조자' 전 세계 20개국 1위! 팽팽한 긴장감, 본격적인 서사의 시작

2024. 4. 24.

2024. 04. 24. - '동조자'가 2화가 공개된 22일(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FlixPatrol) 기준 전 세계 20개국 1위에 등극하며 뜨거운 반응을 입증했다.

쿠팡플레이 독점 시리즈 '동조자(The Sympathizer)'는 자유 베트남이 패망한 1970년대, 미국으로 망명한 베트남 혼혈 청년이 두 개의 문명, 두 개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겪는 고군분투를 다룬 이야기.





지난 22일(월) 공개된 2화 ‘모범적인 아시아인’에서는 미국에 정착한 ‘대위(호안 쉬안데)’의 본격적인 이중 스파이 활동이 시작됐다. ‘장군’(또안 레, Toan Le)의 심복으로 머물면서 동시에 베트남의 공산주의 세력에게 ‘장군’의 동향을 암호 편지로 전달하는 등 긴장감 넘치는 첩보 활동을 이어갔다.

새롭게 등장한 아시아계 미국인 ‘소피아 모리(산드라 오)’는 ‘대위’와 로맨틱한 관계를 형성하며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예고했다. 여기에 동양학 교수 ‘해머’ 캐릭터로 다시 한번 파격 등장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대위’의 내면을 뒤흔들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한편 ‘장군’은 난민 커뮤니티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CIA 요원 ‘클로드(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함께 일명 ‘두더지’ 색출에 열을 올린다. 자신의 이름 역시 리스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대위’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령을 죽여야 할까?”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더욱 흥미진진해질 다음 이야기를 예고했다.

‘동조자’는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 것이다” (IndieWire), “대담하고 야심차고 눈부신 시리즈” (TIME Magazine) 등 해외 언론들의 뜨거운 반응이 입증하듯, 2화 공개 후 국내 시청자들의 호평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 “박찬욱의 친 미장센”, “박찬욱 X 스파이 X HBO!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등 박찬욱 감독의 신작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시청자들의 입소문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1인 다 역으로 화제 되고 있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연기에 대해 “비주일로 한 번 놀라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연기에 두 번 놀란다”, “앞으로 어떤 캐릭터로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등 그의 파격적인 등장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쿠팡플레이 독점 시리즈 ‘동조자’는 오는 29일(월)에 3화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1화씩 공개된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